

세계잎담배 시장 동향 및 전망

김 상 석

한국담배인삼공사 특수사업국

각국 정부의 흡연규제 및 민간차원의 반흡연운동에 더하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사태는 담배산업의 미래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호품으로서 담배의 소비특성과 재무구조상 양호한 현금흐름은 비록 성장성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존재하게 할 것이다.

담배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잎담배가 제조원가의 약 50%를 차지하고 엽배합에 의해 담배의 특성이 거의 결정된다고 볼 때 담배산업에서 차지하는 원료잎담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제조독점 폐지와 완전 민영화를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Global 기업으로 한국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잎담배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세계적으로 잎담배의 생산은 다른 농산물과 같이 주기적으로 생산량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담배제품의 소비정체 내지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감소하고있는 추세이다. 황색종의 경우,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감산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90년대의 10년간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13.8%, 14.6% 감소하였다. 중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국내 소비에 그치고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최근 품질향상 및 중국 당국의 재고감축 노력에 의해 연간 약 1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

은 브라질, 미국, 짐바웨이며 특히 브라질은 품질향상 및 자국 화폐의 가치절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세계 황색종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가장 품질이 우수한 황색종 잎담배를 생산하는 나라이지만, 자국내 소비감소, 상대적 고가에 의한 수출감소에 의해 최근 3년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중 전체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은 년평균 약 21% 수준이었다. 버어리종의 생산과 소비는 장기적으로 황색종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난 10년간 생산면적은 17.8%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8% 증가하였고 소비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수출량은 년평균 약 38% 수준이다. 오리엔트엽은 90년대에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년평균 수출량은 약 48% 수준이다.

한국은 상대비교가 가능한 주요 잎담배 생산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매가로 인하여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구에 이루어질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 해제는 연초경작농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현재와 같은 직간접적인 농민지원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미숙엽의 수확, 급건엽, 혼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잎담배 그 자체로서든, 제품으로서든 품질경쟁력의 제고가 불가능하며 특히 세계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품종고유성, TSNA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